

POSTING

IPPI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Incheon Metropolitan City Public Health Policy Institute

2019 Vol.3

Incheon
Metropolitan City
Public Health
Policy Institute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POSTING

발행일 2019. 09.

발행호 Vol.3

발행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편집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발행처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홈페이지 <http://www.ippi.or.kr>

전화 032-580-6392

디자인 및 제작 (주)032디자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4

6

10

12

CONTENT

[공공보건의료 Issue]

공립요양병원 운영현황과 과제

[Focus on 인천]

인천광역시 진료권별 치매 의료이용 현황

[공공의료 Alive]

인천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강문철 원장 인터뷰

[지원단 주요일정]

추진성과·향후계획

공립요양병원 운영현황과 과제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
정백근

2018년 1/4분기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내부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은 총 1,535개소이며 이 중 공립요양병원은 79개소로 전체의 5.1%에 해당합니다.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78개 공립요양병원 중 76개 기관이 의사인력 1등급이었으며, 62개 기관은 간호인력 1등급이었습니다. 또한 73개 공립요양병원이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환자 구성을 살펴보면 공립요양병원 전체 환자의 58.2%는 치매환자였으며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의료 최고도, 고도, 중도, 경도 환자는 전체 환자의 47.4%에 해당하였습니다. 전체 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는 22.6%이며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512.1일, 평균 병상이용률은 87.4%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서지우 등, 201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news/>)).

그러나 공립요양병원 운영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입원환자의 장기수용시설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비단 공립요양병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중증 환자 및 의학적 필요성이 높은 환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공립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 중에는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요양시설에 입소해야 할 환자들도 많지만 요양시설 입소 기준의 엄격함과 병원 간 과도한 경쟁은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부채질합니다.

두 번째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공립요양병원의 기능과 역할은 민간병원과 크게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공립요양병원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함에 따라서 공립요양병원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1월에 발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 중심)'에 의하면 퇴원환자에 대한 요양병원의 퇴원계획 및 돌봄 지원 연결 기능과 방문의료 제공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의 안정적 추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

므로 향후 정책적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정책적 관심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고 작년 10월 1일에 발표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서도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여 여전히 전체 보건의료체계 속에서의 공립요양병원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정립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두 번째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립요양병원이 위탁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 운영과 관련된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위탁 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이 상이합니다. 또한 체계적인 평가와 이에 따른 지원 및 관리 방안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법적 근거에 기반한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가 시행된 만큼 향후 합리적 평가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의 기반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인구고령화, 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 증가, 치매국가 책임제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공립요양병원은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 공립요양병원은 치매환자 진료, 재활, 일반 요양 등 다양한 기능 등을 수행함으로써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립요양병원들이 수행해야 할 기능들을 재활, 호스피스, 치매진료, 일반 요양 등으로 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 중심)'에서 요양병원 기능 분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한 만큼 공립요양병원들도 현재의 상황에서 향후 어떤 기능을 전문화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장기 입원 환자 수가 많을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반면 이에 따른 수가 감산은 적은 수가체계 하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입원환자 분류체계 정비 및 수가체계 개편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공립요양병원들도 이에 발맞추어 합리적인 입소 기준 및 퇴원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립요양병원이 퇴원을 시키려고 해도 지역사회 내에서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부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단으로서의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모범적인 치매안심병원 운영, 방문의료 제공 및 합리적인 퇴원계획에 근거한 지역돌봄자원 연계 역량 강화, 의료영역과 커뮤니티 케어 영역을 연결하는 가교로서의 역할 강화를 통하여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치매 및 재활 관련 양질의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역량, 취약계층들을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 강화와 관련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과제들의 성공적 수행은 공립요양병원들이 처해 있는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향후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포괄하는 전체 보건의료체계 속에서 공립요양병원들의 위상과 역할은 이상의 과제들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시작된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의 합리적 시행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진료권별 치매 의료이용 현황¹⁾

2018년 인천광역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2.3%로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인 강화군과 용진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인의 주요 건강문제인 치매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를 4개의 진료권으로 나누고 진료권별 치매 수요와 요양병원수, 치매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천광역시의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2016년 기준 30,049명으로 중부권(중구, 동구, 미추홀구, 용진군) 8,152명, 남부권(연수구, 남동구) 7,491명, 동북권(부평구, 계양구) 8,438명, 서북권(서구, 강화군) 5,968명으로 추정됩니다.²⁾

요양병원수는 동북권, 중부권, 남부권, 서북권 순으로 많았으며, 이는 치매환자 규모의 순위와 일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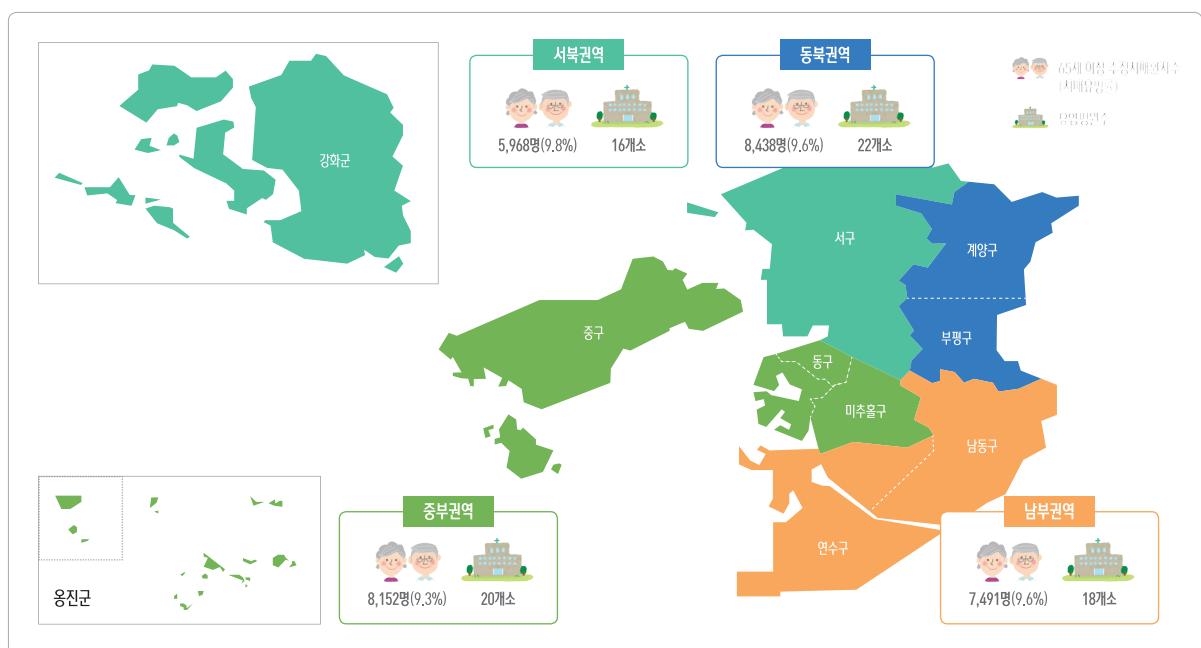


그림 1. 인천광역시 진료권별 치매 수요 및 요양병원수

1)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2018년에 발간한 「인천광역시 신규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타당성 연구」 중 '인천광역시 치매 의료이용 현황'의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2) 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인천광역시 진료권별 재원일수 RI (지역친화도)

지역친화도(Relevance Index, RI)는 특정 지역 거주환자의 총 의료이용량 중에서 의료기관 소재지에 따라 의료이용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이중 자기 지역에 대한 지역친화도를 자체충족률이라고 하는데, 자체충족률 이외의 값으로 타 지역으로의 의료이용 유출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진료권별로 살펴보면,

- 중부권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의 47.4%는 진료권 내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지만, 34.7%는 인천 내 다른 진료권으로, 17.9%는 인천 외 지역으로 유출되었습니다.
- 남부권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의 50.0%는 진료권 내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지만, 23.3%는 인천 내 다른 진료권으로, 26.7%는 인천 외 지역으로 유출되었습니다.
- 동북권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의 50.6%는 진료권 내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지만, 17.6%는 인천 내 다른 진료권으로, 31.8%는 인천 외 지역으로 유출되었습니다.
- 서북권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의 38.1%는 진료권 내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지만, 30.1%는 인천 내 다른 진료권으로, 31.7%는 인천 외 지역으로 유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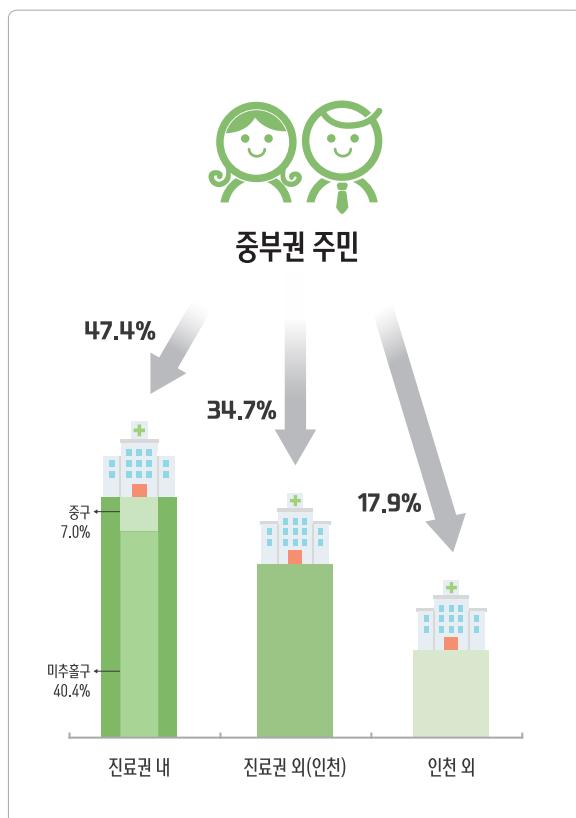


그림 2. 중부권 재원일수 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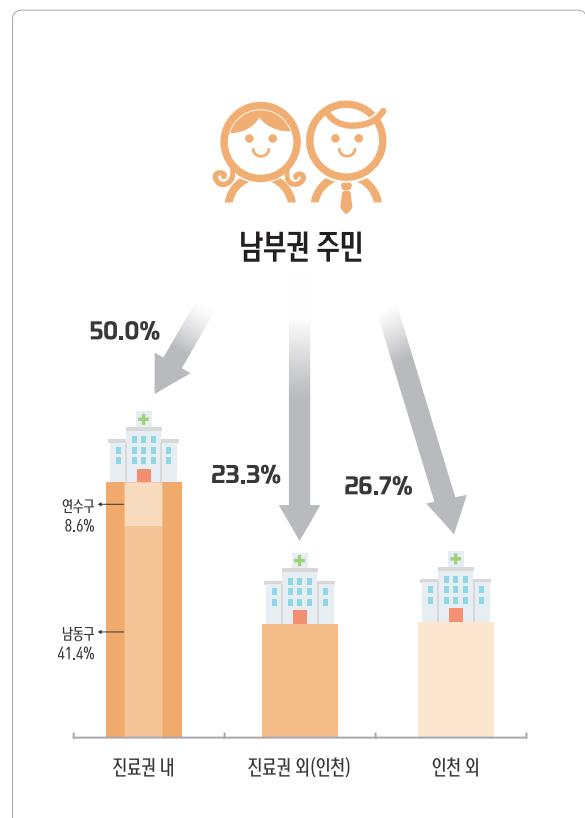


그림 3. 남부권 재원일수 RI



동북권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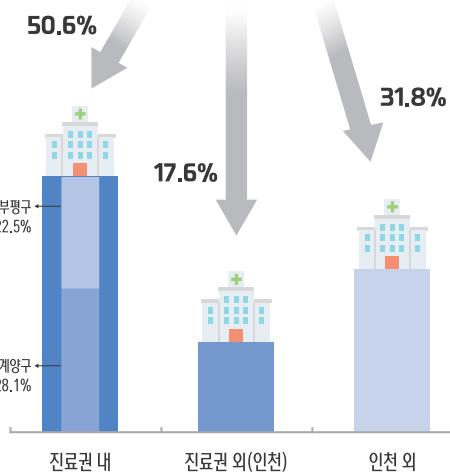


그림 4. 동북권 재원일수 RI



서북권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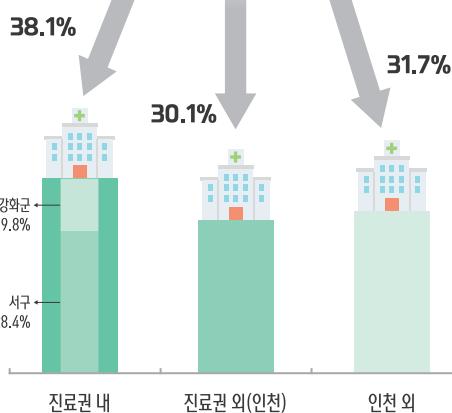


그림 5. 서북권 재원일수 RI

인천광역시 진료권별 재원일수 CI (지역환자구성비)

지역환자구성비(CI)는 특정 지역 소재 의료기관의 총 의료제공량 중에서 환자의 거주지별 의료이용으로, 자기 지역에 대한 지역환자구성비를 제외하면 타 지역에서의 유입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진료권별로 살펴보면,

- 중부권 소재 요양병원의 재원일수 중 진료권 내 치매환자의 의료이용률은 48.8%이며, 나머지 51.2%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치매환자(진료권 외 25.5%, 인천 외 25.7%)가 유입된 것입니다.
- 남부권 소재 요양병원의 재원일수 중 진료권 내 치매환자의 의료이용률은 42.2%이며, 나머지 57.8%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치매환자(진료권 외 26.5%, 인천 외 31.3%)가 유입된 것입니다.
- 동북권 소재 요양병원의 재원일수 중 진료권 내 치매환자의 의료이용률은 43.6%이며, 나머지 56.4%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치매환자(진료권 외 19.9%, 인천 외 36.6%)가 유입된 것입니다.
- 서북권 소재 요양병원의 재원일수 중 진료권 내 치매환자의 의료이용률은 35.8%이며, 나머지 64.2%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치매환자(진료권 외 20.7%, 인천 외 43.5%)가 유입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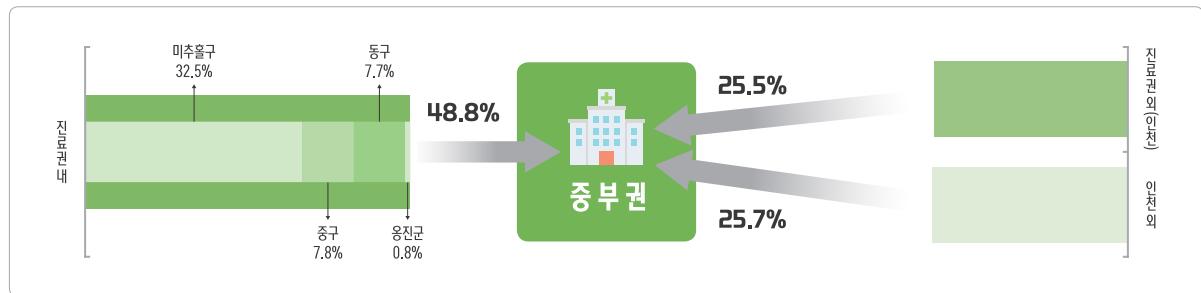


그림 6. 중부권 재원일수 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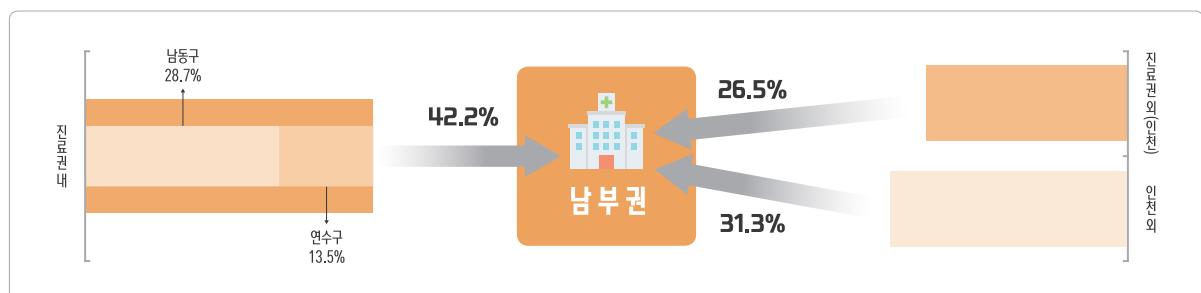


그림 7. 남부권 재원일수 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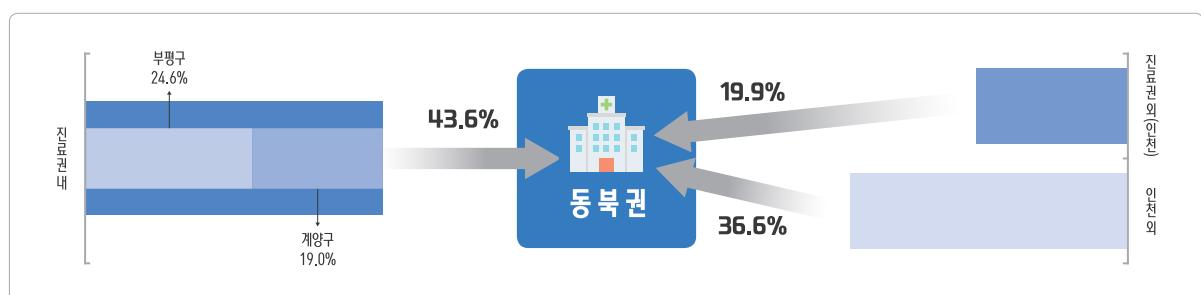


그림 8. 동북권 재원일수 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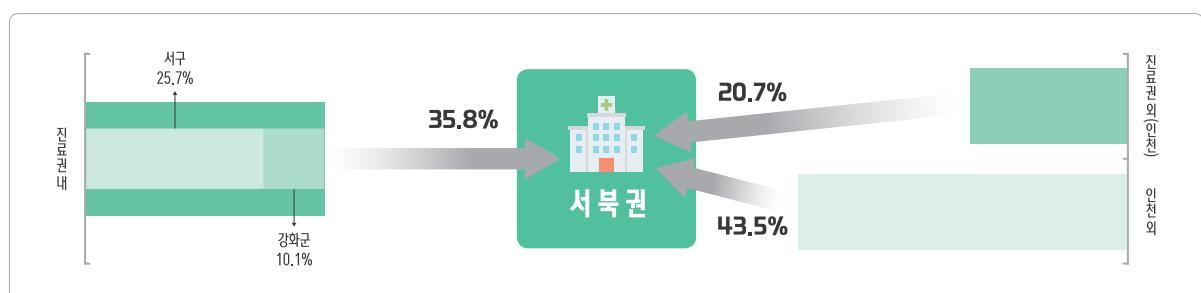


그림 9. 서북권 재원일수 CI



인천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강문철 원장

인터뷰

+

인천 공공의료기관 알리기

본 코너에서는
노인 대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공공병원인
인천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을
소개합니다.



Q. 인천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인천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 증가하는 노인의료 수요에 대처하고, 노인성 질환의 치료와 그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인 대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입니다. 우리 병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노인 돌봄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정책적 노력,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과 은혜병원을 운영하는 서천재단의 기반이 어우러져 설립되었습니다.

Q. 사업 수행에 있어서 지역공공병원으로서 인천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특별한 노력은 무엇입니까?

A. 우리 병원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진료 및 요양과 더불어 의료취약계층 빌그 및 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노인성 치매, 뇌졸중, 심혈관 질환 등에 대한 진료 및 요양과 교육, 예방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천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 지역공공병원으로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를 발굴하고 노인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심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 가족의 정신건강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치매 환자를 돌보며 겪었을 어려움과 상실감, 심리적 박탈감을 치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조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 및 환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내 자원과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사회사업센터는 병원 내 입원환자가 퇴원을 할 때에 환자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자원들을 연계하여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는 보건소, 복지관, 치매안심센터 등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 인천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에서 치매환자 돌봄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휴머니튜드케어」란 무엇입니까?

A. 휴머니튜드케어란 환자를 위한 배려의 기술입니다.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 정해진 시기와 순서에 따라 진료와 처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환자의 입장과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요구에 따라 의료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예정과 열정을 가지고 환자와 상호작용하며 진료의 시기와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치매환자의 경우 경계심이 강하고 포용력이 적어 의사나 간호사, 보호자 등 상대방이 좋은 의도로 하는 행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병원은 휴머니튜드케어 적용을 통해 환자 본인이 치료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간 중심 돌봄 환경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환자 치료를 제공합니다.

Q. 사업을 수행하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A.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 환자를 발굴하여 입원 및 치료를 제공하려면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독거노인 환자의 치료나 입원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보호자가 없어 후견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후견인 선정 과정은 법적 책임문제가 수반되어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 과정을 겪는 동안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환자 돌봄에 필요한 제도적 공백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Q.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치매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 환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 관심이나 이해의 변화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A.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개선 노력과 질환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전문인력양성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환자 보호자와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 부담을 이야기합니다. 치매 또는 유사한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보호자들은 환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직접적·간접적 비용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치매국가책임제가 도입되어 다양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었고,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많이 개선되거나 부양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다르게 간호나 간병을 위한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노인 분야 전문 자격제도가 부재하며, 인력 운영 등 관련 규정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노인기 특성을 이해하고 치매를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치매전문인력양성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성과

2019년 상반기 운영위원회



금년 8월 조승연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으로 앞으로 인천의 변화될 보건의료 환경 내 지원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일 시 2019년 8월 2일(금) 14:00 ■ 장 소 인천의료원 행정동 3층 회의실

2019년 제3차 타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재단 연설회의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관으로 운영된 제3차 연설회의에서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및 각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재단이 모여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권역 책임 의료기관 역할과 기능', '지방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지원단·재단 연구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 일 시 2019년 8월 22일(목) 14:00 ~ 23일(금) 10:30 ■ 장 소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서암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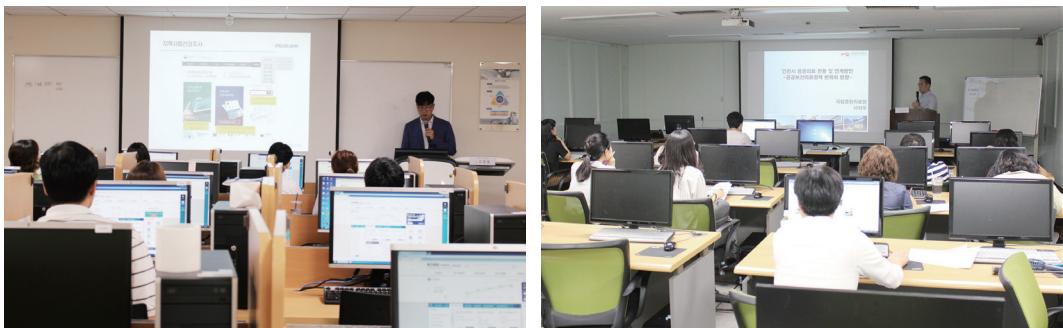
2019년 인천광역시 보건 분야 지원단 및 센터 정례회의



인천 보건 분야 지원단 및 센터 등 전문가 지원조직 간 연계 강화를 위해 하반기 정례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하반기 정례회의는 금년에 개최하고자 하는 공동포럼과 연례보고서 제작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실무자 회의와 기관장 회의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 | | | |
|----------|-------------------------------------|---------------------------|
| ■ 실무자 회의 | ■ 일 시 2019년 8월 26일(월), 28일(수) 14:00 | ■ 장 소 인천의료원 행정동 3층 회의실 |
| ■ 기관장 회의 | ■ 일 시 2019년 9월 11일(수) 10:00 | ■ 장 소 가천의대 518호 예방의학 세미나실 |

공공보건기관 공무원의 보건사업 기획력 강화 교육



인천 내 공공보건기관 종사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국가 및 지역사회 보건사업 이해, 지역사회 현황진단 및 문제점 도출, 지역사회 자원 연계전략 수립 등의 내용으로 교육 및 실습을 운영하였습니다.

- | | | |
|-----------|-----------------------------|--|
| ■ 핵심인재 교육 | ■ 일 시 8월 29일(목) 09:00~17:00 | ■ 장 소 인천시청 지하1층 전산교육장 |
| ■ 신규인력 교육 | ■ 일 시 8월 30일(금) 09:00~17:00 | ■ 장 소 인천시청 지하1층 전산교육장 및 가천의대 6층 멀티미디어실 |

공공의료 INSIGHT 여름호 공동발간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동발행 「공공의료 INSIGHT」2019년 여름호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와 인천·부산·경기·제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공공의료 INSIGHT」2019년 여름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여름호의 지역특집은 '인천광역시'로 2018년 개원한 인천보훈병원과 닥터-카 운영이 소개되었습니다.

-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응급의료체계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 및 심뇌혈관질환센터와 공공보건의료
-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기관(인천보훈병원·정책(닥터-카) 소개
- 필수의료서비스(응급, 심뇌)현황 분석
- 공공의료 추진경과 및 주요일정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향후계획



인천광역시 진료정보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2019년 5월 인천 내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인 인천의료원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료정보 교류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인천 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정보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일 시 2019년 10월 2일(수) 14:00~16:00예정
- 장 소 인천시청 지하 1층 장미홀
- 참석대상 인천시청, 시의회, 관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등 관계자 30명

공공의료기관 핵심인재 대상 보건의료

사업 기획 교육

인천 내 공공의료기관 종사자의 보건의료사업 기획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건강 문제 진단, 공공보건의료사업 기획, 지역사회 지원 및 보건의료-복지 연계 전략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일 시 2019년 10월 25일(금) 9:00~17:00예정
- 장 소 가천의대 6층 멀티미디어실
- 교육대상 인천시 공공의료기관 내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담당자 등

2019년 인천 공공보건의료포럼

2019년 인천 공공보건의료포럼은 관내 보건 분야 지원단 및 센터 관계자와 함께 「필수의료」와 「골든타임」을 주제로 인천시민의 필수의료에 관한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연계체계 구축 사업의 성과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일 시 2019년 10월 31일(목)
- 장 소 인천시청 2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인천시청, 시의회, 공공보건의료기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관계자 200명

2019년 제4차 타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및 재단 연설회의

제4차 연설회의는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관으로 운영됩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발전 방향과 역할 및 기능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단 연구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일 시 2019년 11월 21일(목) ~ 22일(금)
- 장 소 창원경상대학교병원
- 참석대상 NMC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재단 관계자 등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미래 포럼 「인천

공공보건의료, 새로운 미래를 만나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출범 이후 5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천시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단의 방향과 역할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천 공공보건의료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와 공공보건의료 유관기관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일 시 2019년 12월 5일(목) 14:00~17:00예정
- 장 소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1층 중회의실
- 참석대상 인천시, 인천시의회, 공공보건의료 기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00명

